

‘구로형 아이돌봄체계’ 교육부장관상 수상

작은도서관·마을활력소 등 주민 공간 활용 ‘온종일 돌봄센터’ 조성

올해 ‘우리동네키움센터’도 11개소 오픈

‘구로형 아이돌봄체계’가 정부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구로구는 “교육부 주관 ‘2020년 온종일 돌봄 정책 추진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온종일돌봄체계 구축과 정책 내실화에 기여한 기관을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기초자치단체와 해당 교육지원청에 표창을 공동 수여하는 방식으로, 구로구는 서울남부교육지원청과 함께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구로구는 ‘구로형 아이돌봄체계’ 구축 등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이성구청장의 민선 7기 핵심



구로구가 교육부 주관 ‘2020년 온종일돌봄 정책 추진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사진은 구로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내부)

공약 중 하나인 ‘구로형 아이돌봄체계’는 작은도서관, 마을활력소 등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해 온종일 돌봄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집에서 가깝고,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보다 편안하고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부모와 아이들 모두에게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2019년 1월 9곳을 시작으로, 현재 27곳의 온종일 돌봄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구로구는 더욱 촘촘한 돌봄체계 마련을 위해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력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편적·상시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로구는 2019년 2곳, 2020년 11곳의 ‘우리동네키움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 보건복지부 주관 ‘2020년 다함께돌봄센터 우수운영 평가’에서 구로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누리기도 했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에서 ‘우리동네키움센터 집중 지원구’에 뽑혀 돌봄사업 예산 62억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빈틈없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값진 성과로 이어져 기쁘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은 행복하고, 학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G밸리에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들어선다

서울시-산업단지공단, 2021년 7월 개관 바이오, 의료기기 개발·투자 유치 등 지원



서울시가 의료기기 제조업체 270여개가 집적해 있는 G밸리에 ‘의료기기 개발 지원센터’를 2021년 7월 개관을 목표로 조성키로했다. (사진은 G밸리 야경)

서울시가 의료기기 제조업체 270여개가 집적해 있는 G밸리에 ‘의료기기 개발 지원센터’를 조성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2021년 7월 개관 목표다.

구로동과 금천구 가산동 일원에 조성돼 있는 G밸리는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연구개발(R&D)부터 시제품 제작, 임상, 인허가, 의료기기 기술개발 등 사업화 전 단계를 원스톱 밀착 지원하는 거점 시설이다. 시는 앞으로 개발·생산 중심의 G밸리를 기획·연구 중심의 바이오·의료 핵심거점으로 키워나간다는 목표다.

G밸리 의료기기 개발 지원센터는 1단계에 전용면적 약 660㎡(200평) 규모로 들어선다. 서울시와 G밸리의 개발·관리와 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동으로 조성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간을 매입해 시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시가 센터를 조성한다. 운영은 시가 위탁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맡는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2023년

까지 3년간 총 5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센터 내부는 기업지원공간, 기초실험연구실, 기술지원실 등을 갖춘 시설로 조성된다. 이곳에서는 △의료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개발 △의료기기 디자인, 임상, 사용성(Validation) 평가 △코로나 등 신종 감염병 진단을 포함한 체외진단기기 개발 △기술 사업화(시제품 제작, 단계별 컨설팅, 인허가 등) △투자유치 등을 종합 지원한다.

한편 서울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이런 내용으로 G밸리 의료기기 개발 지원센터 공동 조성·운영을 위한 서면 업무협약을 지난 21일 체결했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바이오산업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G밸리에 기업들을 위한 의료기기 개발 지원센터를 조성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이끌 혁신적인 의료기기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기술사업화를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2020 구정백서’ 발간

구로구가 ‘2020 구정백서’를 발간했다.

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스마트 구로를 주제로 구의 일반현황과 주요사업 등을 수록한 구정백서를 제작했다.

구정백서는 구로구 일반현황, 예



산, 시설, 분야별 구정 주요사업으로 구성됐다. 구정 주요사업은 총 7개 분야, 110개 사업이 수록돼 있

다. 스마트산업, 교육문화, 녹색도시, 복지안전, 균형발전, 참여행정, 코로나19 대응 등이 정리돼 있다.

구로구는 구정백서 350부를 발간, 구청 각 부서 및 동주민센터 등에 업무 참고자료로 배부했다. 책자는 구청 구정홍보관에서 e-book으로도 열람 가능하다.

<채홍길 기자>

신축년(辛丑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www.songlimga.com

함께 있어 좋은 날엔 더 좋은 곳에

사랑하는 가족과 맛있는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행복한 공간

정성 그리고 맛

음식점의 성패는 고객에 대한 마음가짐, 인생의 레시피는 '사람과 함께 하는 여정'

정직 그리고 멋

진심이라는 빛과 물을 줄 때 마음은 비로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다

성실의 향기

소나무도 5년이 되어 뿌리를 내리듯, 기다림을 통한 '행복한 향기'를 나누는 사람



풍미가 담긴 肉의 名家

송림가 예약문의 02.2066.6000

정통의 맛을 담은 宗食 名家

실크로드 예약문의 02.2066.6100

불꺼진 거리엔 소상공인들 어둠속 한숨 소리만...

‘거리두기 2.5단계’ 음식점·실내 체육시설 업주들 벼랑끝 몰려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코로나 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성탄절을 앞둔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행정명령 발동 시한은 1월 3일 24시까지이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이날 개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공동 사적 모임 제한 방역지침’을 발표했다.

5인 이상 모든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다.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도권 3개 시·도가 강경 조치를 내놓은 것은 코로나19 확진자의 70%가 수도권에서 발생할 정도로 확산세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수도권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 지난 8일부터 모임·행사 때 50인 이상 집합 금지를 적용받고 있다.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동호회, 동창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이 일체 금지된다. 식당은 5인 이상 합석이 불가능하지만, 가족의 경우 사적 모임이 아니라 가족 자체이기 때문에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상 4인 1조에 경기보조원이 동행하는 골프도 불가능하다. 영화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이 장기화되자 음식점, 카페 등 소상공인들이 버티지를 못하고 폐업하는 점포가 늘어나고 있다.



이용도 제한을 받는다.

다만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은 불특정 다수라서 적용 대상이 아니다.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고려해 결혼식과 장례식도 2.5단계 거리두기(50인 이하 허용)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사적 모임이 아닌 공적 업무나 직무 등 필요한 모임과 행사들도 기존 2.5단계 기준을 적용받는다. 출근을 포함해 직장 업무를 위한 집합은 대상이 아니다.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며 카페는 실내에서 음료를 마실 수 없고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다.

◇코로나 장기화로 경각심 줄어

많은 구민들이 코로나19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진 것 같

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접촉 빈도가 높고 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서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사회 활동이 활발한 젊은층이 코로나19에 더욱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활동 범위가 넓고 또, 무증상 감염이 많은 젊은층은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더 가져야 하고 거리두기 강화 또한 더 필요하다.

곳곳에서 나타나는 방심은 도미노처럼 연쇄적인 감염을 유발할 수 있고 유행 규모를 키울 수 있다. 결국 그 피해는 감염에 취약한 분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방역당국은 최근 들어 학원과 관련한 방역수칙 위반 사례 신고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상공인 상가는 불꺼진 거리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앞에서 프랜차이즈 중식당을 운영하는 김모(39)씨는 “원래는 마감 시간이 더 늦은데 배달·포장 손님 기다리고 있을 바엔 차라리

영업을 안 하는 게 더 남는 장사”라면서 “거리두기 2단계 전부터 중앙상가 지하 식당가는 9시 전이면 많은 곳이 문을 닫고 있는 추세로 상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지하 상가로 내려와서 하루의 피로를 풀고는 했는데 지금은 집으로 가기 바쁘다”고 말했다.

◇‘커피 맛 보다 대화’ 카페 방문

구로역 NK 백화점 근처에서 커피숍을 운영중인 A씨(40)는 “외부 경관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하러 커피숍에 방문하는데, 테이크아웃만 하면 손님이 오겠다”고 반문했다. 커피전문점이나, 커피숍에 방문하는 이유는 질 좋은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보다는 지인들과 대화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여 온다는 것이다. 그는 “소상공인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코로나19 대비를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는 만큼 방역당국이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 빈사상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경제 활동을 직접 제한하는 ‘고강도’ 조치라는 점에서 이들의 부담이 크다. 게다가 정부가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는 곳은 바로 집합 금지하겠다고 공언한 것도 걱정이다.

자영업자들은 방역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이해하면서도, 자신해서 영업을 중단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손님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는데, 가게 월세나 인건비 등 고정 지출은 그대로기 때문에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더 이득이라는 것이다.

◇방역조치 만큼 세금도 감면해야

정부 방역조치를 잘 따르는 만큼, 세금이라도 일부 감면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구로1동에서 회원을 운영하는 이 모씨(38)는 “모든 행사가 줄어들면서 꽃집은 대출을 받아서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전국민이 힘들어 하고 고통을 받는 점은 알고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마스크만 잘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만 잘 지키면 그만이지만 우리 같은 영세 상인들은 돈이 들어가고 있다. 코로나가 끝나면 일반국민들은 마스크를 벗어 버리고 자유롭게 활보를 하게 되지만, 우리는 결국 가게를 접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손실금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며 “한마디로 코로나 때문에 부도가 날 수 밖에 없다”며 절망했다. (한만수 기자)

문예창작실기 지도사 1.2급 자격증



교보문고
절찬
판매중

- 마법의 글짓기 작법
- 마법의 시창작법
- 소설창작의 정석
- 수필창작의 정석
- 예술과 문예창작

가격 43,000원

장편소설 6개월 완성 시창작 기초/완성반

-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과정
- 대하장편 소설 “금강” 15권
- 장편소설 “하루”외 130여권
- 시집 “너” 외 7권
- “문예창작의 정석”외 3권
- 이무영 문학상 외 다수
- 한국문예창작진흥원 원장
- 경희사이버대학교 소설창작 강의



한만수 원장 직접 강의

한국문예창작진흥원
구로역 근처 02-2636-3765

구로구·고대구로병원, 구 청사에 '건강계단' 운영 온라인 '구로 청소년 축제' 개최

고대구로병원 1인당 20원, 1년 최대 1천만원 취약계층에 기부

"구로구청 계단을 오르면 건강도 좋아지고 기부도 할 수 있다!"

구로구와 고대구로병원이 '건강계단'으로 기부금을 마련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한다.

구로구는 "주민 건강 증진과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구 청사에 '건강계단'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올해도 70만명이 건강계단을 이용해 기부금 1,000만원이 적립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건강계단'은 계단에 디자인을 입히고 시청각적 재미요소와 건강정보를 가미한 계단이다.

구로구는 고대구로병원과 함께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불우이웃도 돕기 위해 이용자 1인당 일정액의 기부금을 적립하는 건강계단을 2014년 10월 구 청사에 조성했다.

구청 본관에 마련된 건강계단은 1~2층의 경우 걸을 때마다 피아노 소리와 함께 불빛이 나온다. 2~5층은 잔디 디자인이 입혀



구로구와 고대구로병원이 '건강계단'으로 기부금을 마련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한다. 구는 주민 건강 증진과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구 청사에 '건강계단'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져 이용자가 숲을 걷는 느낌이 들도록 조성됐다. 계단 위쪽에는 이용 시 소모되는 칼로리 양과 늘어가는 수명에 대한 정보도 기재돼 있다.

고대구로병원은 건강계단을 통해 이용자 1인당 20원씩, 연간 최대 1,000만원을 적립해 기부도 한

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총 6,250만원의 기부금을 구로희망복지재단, 구로구장학회, 구로문화재단 등에 전달했다.

김영렬 보건행정과장은 "계단 오르는 체력을 기르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간단하고 쉬운 운동법이다"며 "건강도 좋아지고 어려운 이웃도 도울 수 있는 '건강계단'에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구로구는 기부금이 적립되지는 않지만 ▲신도림역 ▲구 보건소 ▲현대파크빌 ▲동원빌딩 ▲삼성IT밸리 ▲대릉포스트타워2차 ▲동부물타운아파트 ▲오류동부아파트 ▲고척리가아파트에도 건강계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김유권 기자>

30일부터 1월 27일까지 4주간 온라인 프로그램 다채

구로구가 '구로 청소년 축제'를 개최한다. 구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열정을 마음껏 펼치며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청소년 축제'를 연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번 '구로 청소년 축제'는 30일부터 오는 1월 27일까지, 온라인 플랫폼(www.2020guroyc.com)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치러진다. '세계시민'을 주제로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먼저 3D캐릭터로 참여하는 '세계시민 퍼레이드'가 메인 화면을 장식한다. 구로구는 매년 1,000여 명의 청소년들이 화려한 퍼포먼스를 펼치며 구로중앙로 일대를 행진하는 '길놀이 축제'를 진행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오프라인 행사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온라인으로 방식을 전환했다.

헤어, 의상, 피켓 내용 등을 직접 선택해 3D 캐릭터를 생성하면

자동으로 퍼레이드에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게임을 즐기듯 각자 개성을 드러내는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참여하는 방식으로 청소년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한다. 또한 기존 길놀이 축제가 열리던 구청 사거리 일대를 웹상에 구현해 현실감을 높였다.

남치는 끼와 재능을 뽐낼 수 있는 온라인 부스도 마련된다.

미술, 연주, 합창 등 장르 불문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는 '구로 TV스타'를 비롯해 '댄싱쇼', '방구석 노래방'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세계시민 캠페인 SNS 인증샷,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스탬프 적립 등 이벤트를 실시해 소정의 상품도 제공한다.

축제는 27일 온라인 폐막식으로 막을 내린다. 폐막식은 프로그램 별 수상팀 발표,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 등으로 꾸며진다.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채홍길 기자>

공동 광덕사 '사랑의 쌀' 250포대 '나눔' 실천



연말연시를 맞아 공동에 위치한 광덕사에서 지난 21일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는 지역 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광덕사 신도들

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백미 10kg 250포대를 전달했다. <사진>

기부된 쌀 250포대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채홍길 기자>

고척2동 새마을지도자협 이의선 회장, 행안부 장관상 수상

구로구 고척2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의선 회장(사진·77)이 취약계층 안전관리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취약계층 안전관리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에 공로가 큰 개인에게 주어진다.

이의선 회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꾸준히 방역 활동을 해왔으며 취약계층에 방역물품을



제공하는 등 주민 안전을 위해 솔선수범한 공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회장은 1973년부터 2020년까지 47년간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고척2동 통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노력해왔다.

<김유권 기자>

구로혁신교육지구

2020 제5회 온라인 구로 청소년 축제

www.2020guroyc.com

2020. 12.30 | 수

2021. 1.27 | 수

축제 zone별 참여하면 스탬프 도장 획득~ 축제 이벤트 참여하고 경품 받아주세요~ (에어팟, 갤럭시노트, 기프트콘 등)

다채로운 12개의 행사ZONE

- 댄싱쇼
- 구로TV스타
- 학생과학축전
- 방구석노래방
- 세계시민캠페인
- 봉사 별별 어워드
- 청소년 자치박람회
- 온마을교육 박람회
- 방구석 뽀빠지대회
- SNS캠페인 이벤트
- 세계시민 작품전시회
- 구로청소년 E-SPORTS리그

내가 만드는 또 다른 나!

나의 캐릭터와 함께 세계시민퍼레이드를 온라인으로 즐겨봐요

TAXIATION
댄싱쇼

24/7

INTRO

폐막식 : 2021. 1. 27(수), 오류아트홀(유튜브 라이브중계)

구로구

구로청소년문화의집

시립구로청소년센터

구로청소년문화의집

시립구로청소년센터

구로청소년문화의집

(사)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주관 종합평가
대한노인회 구로지회 '최우수상' 수상 '쾌거'
 '회원배가' 등 전부문 1위 휩쓸어... 시행후 처음

대한노인회 구로지회(지회장 전영수)는 (사)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주관 2020년도 경로당활성화사업평가 결과 서울시 25개 지회 중 종합평가 1위로 김성현 서울시연합회회장으로부터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구로지회는 ▲회원배가 부문 1위 ▲노력도(회원배가 및 경로당 프로그램 연계등)1위 ▲DB(Date Base 자료 모음)시스템 정확도 부문 1위를 차지하며 전 부문에서 1위를 획득해 '최우수상' 타이틀을 차지했다.

전 부문1위로 종합평가 1위를 한 것은 경로당 활성화사업 시행 후 역대 최초다.

더구나 그동안 서울시 25개 지회 중 23위 정도를 하던 노인회 구로지회가 불과 2~3년 만에 1위를 차지한 반전 드라마로 노인회 구로지회 성과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노인회 모든 관계자들은 노인회 구로지회를 향해 칭찬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회원배가 부문에서는 196개 경로당 회장들과 회원들 노력으로 2019년에



대한노인회 구로지회가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주관 2020년도 경로당활성화사업평가에서 서울시 25개 지회중 종합평가 1위를 차지해, 박석희 사무국장(왼쪽)이 김성현 서울시 연합회회장으로부터 '최우수상'을 받고있다.

이어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그 결과 2018년 6,967명, 2019년 11,273명에서 2020년엔 3,837명의 회원이 늘어나 현재 노인회 구로지회 회원수는 모두 15,110명에 이르고 있다.

2021년 신축년에도 (사)대한노인회 구로지회는 어르신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

는 경로당으로 거듭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박석희 대한노인회 구로지회 사무국장은 "노인회 구로지회를 위해 모든 성원을 아끼지 않는 경로당 회장님들과 임원, 1만오천여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이 영광을 이분들께 돌려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채홍길 기자>



구로구가 서울시 주관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 (사진은 구로중앙로 일대 구로기계공구상가 176개 점포 간판개선사업)

옥외광고물 평가 4년 연속 '우수 자치구' 선정

간판개선사업 · 무주간판 무상 철거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호평'

구로구가 서울시 주관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

이번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 평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자치구에서 추진한 옥외광고물 정비·개선 실적, 간판 수준 향상, 행정사항 등 3개 분야 10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구로구는 평가 항목 전반에 걸쳐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평가기간 동안 현수막, 입간판, 벽보 등 유동광고물 238만여개와 불법 돌출간판 등 고정광고물 225개를 정비했다. 도시 미관 개선과 주민 통행 안전을 위해 구로중앙

로 일대 176개 점포, 디지털로 일대 160개 점포를 대상으로 간판개선사업도 실시했다.

또한 주인 없는 간판 무상 철거, 소상공인 아트테리어 간판 개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좋은 간판 전시회 개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로구는 이번 우수 자치구 선정으로 1억원 이상의 내년도 간판개선사업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우태희 건설관리과장 "앞으로도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이동센터에 '쿠키세트' 전달
 코로나19 의료진 및 대응인력에도 간식 제공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환)은 지난 22일, 23일 성탄절을 맞아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쿠키세트를 전달했다.(사진)

따뜻한 나눔을 전달 받은 곳

은 오류마을, 구로파랑새나눔터 공부방, 에델마을, 삼농실버마을, 중국동포지원센터로 총 5개 기관이며 전달된 쿠키는 310세트로 248만원 상당의 분량이 전달



됐다. 공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

역경제 복구를 위해 사회적기업 '두리하나다울'에서 쿠키세트를 구매하여 기부행사를 통한 수혜층 범위를 극대화하고, 사회적가치창출의 의미를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 21일, 23일 관내 코로나19 의료진 및 대응인

력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간식세트를 전달했다.

간식세트는 코로나19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 및 대응인력을 응원하기 위해 공단 임직원이 기부한 '끝전통장 모금액'으로 구매했으며, 구로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구로구 코로나 대책본부로 전달됐다. <김유권 기자>

辛丑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8월 31일 열린 남구로시장 고객휴식처인 '구구쉼터' 개소식

남구로시장 상인회 회장 이희술 외 회원 일동

2020년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어렵고 힘든 날들을 슬기롭게 잘 지내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구로시장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辛丑年 새해를 맞이하여 남구로시장 상인회의 모든 회원들이 구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萬福이 깃들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구로구의회 조미향, 김철수 의원 한국을 빛낸 범죄예방 인물대상 '의정대상' 수상

구로구의회 조미향 의원, 김철수 의원이 '2020 한국을 빛낸 범죄예방 인물대상'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한국범죄퇴치운동본부 주관하고 한국을 빛낸 범죄예방 인물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범죄예방 인물대상은 적극적인 범죄예방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원을 해마다 선정해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합동 시상식 대신 한국범죄퇴치운동본부 윤태한 이사장이 직접 방문해 개별적으로 시상식을 진행했다.

조미향 의원은 제8대 구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그동안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범죄예방 활동과 봉사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구로구의회 조미향 의원(왼쪽)과 김철수 의원이 '2020 한국을 빛낸 범죄예방 인물대상'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조 의원은 이날 수상 소감을 통해 '이 상은 범죄예방 활동에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매진하라는 의미로 알고 앞으로도 각종 범죄 예방 활동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수 의원은 평소 지역안전에 관심을 갖고 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펼쳐 구민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치안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김철수 의원은 '이번 수상을 격려 삼아 앞으로도 구민들이 각종 재해 재난 범죄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유권 기자>

강남리즈 유광순이사장 '범죄예방 인물대상' 수상

한·중다문화갈꿈이총연합회 감사패도 받아



유광순 이사장이 지난 12월6일 사단법인 한국범죄퇴치운동본부에서 수여하는 '2020년 대한민국을 빛낸 범죄예방 최고인물 대상'을 수상했다.

생협 강남리즈 성형외과(이사장 유광순)가 지난 12월6일 사단법인 한국범죄퇴치운동본부에서 수여하는 '2020년 대한민국을 빛낸 범죄예방 최고 인물 대상'을 수상했다.

이는 유광순 이사장이 국가 발전과 나라사랑에 헌신하여 왔으며, 특히 범죄예방 활동을 통해많은 봉사활동과 조합원들이 헌신 노력을 인정 받아 수상하게 됐다.



유광순 이사장이 희망온돌 성금을 이성구청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또한 한·중다문화갈꿈이총연합회에서 수여하는 감사패도 받았다. 이는 조합원과 임원들이 '아나바다운동'과 '내동네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그동안 구로리어린이공원과 구로4동 뒤골목 청소 등 환경정화운동에 앞장선 공로다.

유 이사장은 "조합원들이 노고와 주민들의 격려와 응원 덕분에 수상하게됐다. 의료생활을 대표해서 지역의 큰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 봐 달라"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구로기계공구상가에 '커피 천사 10년' 화제

'대신 종합포장' 안미숙씨, 매일 아침 30여잔 커피 돌려

국내 공구상가 최대 규모인 구로기계공구상가에 천사(?)가 있다.

주인공은 구로2동 공구상가 A브릭 8동에서 포장재 전문 종합유통점 '대신 종합포장'을 운영하는 안미숙(47세)로 매일 아침에 커피를 무료로 배달하고 있어 주변 사장님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다. 기자가 성탄절 전날인 24일 안씨를 만났다.

안씨는 10여년 전부터 매일 상가 동료 상인들은 물론 구로공구상가조합에 근무하는 경비원 등

근로자들에게도 "추운데 따뜻한 커피한잔 하시고 일 하세요"라며 웃으며 커피를 건넨다.

보통 요즘같이 추운 겨울이면 오전 7시30분, 여름엔 오전 6시에 매일 천사같이 나타나 커피를 하루에 30여잔 돌린다. 커피도 일반 믹스커피가 아닌 커피를 내려서 만든 안씨의 '천사표 커피'다.

커피천사를 하게된 동기를 물으니 "10여년부터 가게 세를 얻어 애아빠와 같이 이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동기는 없고 아

침에 동료 상인들에게 커피 한잔 돌리며 안부도 묻고 인사를 나누면 좋잖아요"라며 "앞으로도 이 자리에서 영업을 할때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대답한다.

한달에 커피 제조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물으니 "커피는 우리 애아빠가 책임지고 조달하고, 저는 제조하고 배달을 하지요"라고 수줍어 한다. 옆에 있는 '대신 종합포장' 권찬홍 대표(53세)는 "선반의 저 커피의 남은 양을 보며 대형식품점서 주문해서 채워



구로2동 기계공구상가 A브릭 8동에서 '대신 종합포장'을 운영하는 안미숙가 매일 아침에 커피를 무료로 배달하고 있어 주변 사장님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다.

놓고 있어요" 라고 말한다. 앞으로 바람을 묻자 "코로나19



안미숙씨가 운영하는 '대신 종합포장'

가 빨리 종식되어 우리같은 소상공인들이 예전과 같이 매출도 오르고 웃으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신축년(辛丑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로구에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언제든지 노크하세요' 맥가이버 봉사단이 있습니다

구로구 맥가이버봉사단

단장 조재화, 부단장 신광호, 총무 서복례, 간사 이재환 단원 외 일동

코로나로 힘들어도 '나눔의 온정' 활짝

기부금·떡국떡·쌀·김치·생필품·마스크 등 전달 이어져

코로나로 힘들지만 나눔으로 '온정이 가득한 구로의 연말 연시'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15일 구로구체육진흥협의회(대표 홍순철)가 관내 초·중·고등학교 체육 꿈나무 15명에게 총 9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체육진흥협의회는 매년 주민들과 함께하는 '명품 구로 올레길 걷기 행사'를 개최해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취소하고 행사 개최비 일부를 장학금으로 마련했다.

개봉라이온스클럽(회장 한충구)도 지난 18일 취약계층을 위해 300만원을 기탁했다. (사)함께하는 사랑밭(대표 박국양)은 16일 김치 10kg 400박스, 백미 10kg 200포를 전해왔다.

각 동에서도 이웃을 위한 나눔 행렬이 이어졌다.

수궁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장민호)는 관내 어린이집 원아 340여명과 '사랑의 동전 모으기' 캠페인을 통해 마련한 133만원을 최근 기부했다.

구로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차정희)는 23일 한부모가정



연말 연시를 맞아 각계에서 온정의 성금품이 담겨지고 있다. (사진은 넥스젠파트너스그룹 구분영 대표이사(왼쪽)가 이성구청장에게 성금을 전달하고있다)

20가구를 대상으로 상품권, 케이크, 화장품 등을 지원했다. 22일 신도림동에서는 동 자원봉사협력단(단장 하숙현)이 취약계층 50명에게 떡국떡을 나눠줬다.

앞서 17일에는 하늘씨야교회(담임목사 김민철)가 500만원 상당의 식료품(컵밥, 즉석밥 등 14종)을 저소득층 100가구에 전달했다.

17일 오류1동 열방샘교회(담임목사 이발립)도 선물꾸러미 100박스와 이불, 선물세트, 기저귀 등을 마련해 취약계층 110가구에 지급했다.

구로1동에서는 21일 동 자원봉사 캠프(캠프장 임경화) 주관으로 취약계층 떡국떡 전달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20가구가 시간차를 두고 물품을 수령해갔다. 17일 동 통장친목회(회장 구승자)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김정자)는 김치 10kg를 각각 40박스, 30박스 기부했다.

17일 가리봉교회(담임목사 최홍규)는 관내 저소득 주민 500명에게 쌀 10kg 400포와 생필품세트 100박스를 후원했다.

같은 날 오류1동에서도 다운신용협동조합(이사장 이인성)이 저소득주민 50명을 대상으로 밀반찬을 배부했다.

기업들의 기부도 잇따랐다. 넥스젠파트너스그룹(대표이사 구분영)이 2400만원, (주)네오바이오텍(대표이사 허영구)이 1000만원,

이호대 의원, 서울시의회 '항공기소음특위' 위원장 선출 "항공기 소음 피해 구제 및 보상 등 종합대책 마련 할 것"

서울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이하 '항공기소음특위')는 지난 12월 22일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이호대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구로2)을 선임했다.

아울러 항공기소음특위는 특위 위원 등 13인이 공동 발의한 '서울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29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향후 항공기 소음과 관련한 피해구제 및 보상, 소음 방지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본격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항공기소음특위는 제9대 서울시의회에서 최초 구성되어 서울 서남권을 대상지역으로 활동(15년 4월~18년 6월)했다. 제10대 개원 이후에는 전반기 활동(18년 11월~19년 12월)을 마쳤으며, 이번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어 항공기 소음 문제 해결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이호대 위원장은 "항공기소음특위는 서울시 서남권 주민의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을 위해 정부 및 한국공항공사에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앞으로도 항공기 소음 관련 피해 구제 및 보상, 소음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향후 서울 전 지역 확대는 물론 항공기 소음 문제를 겪고 있는 전국 각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채홍길 기자〉

(주)노블전자지도(대표이사 안정철)가 500만원, 에이스건설(주)(대표이사 권보식·원수연)가 500만

원, (주)크리젠솔루션(대표 허선행)이 덴탈마스크 2만5000매를 후원했다. 〈김유권 기자〉



구로구의회 이재만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상을 수상했다. (사진은 구의회에서 조례 발의하는 모습)

구로구의회 이재만 의원 '지방의회 우수조례 우수상' 수상

구로구의회 이재만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주민들의 삶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참신하고 검증된 우수 조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행사로, 당 소속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조례를 공모받아 총 300여 건을 심사, 수상작

을 선정했으며, 시상식은 지난 22일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수상자 인원을 대폭 축소해 진행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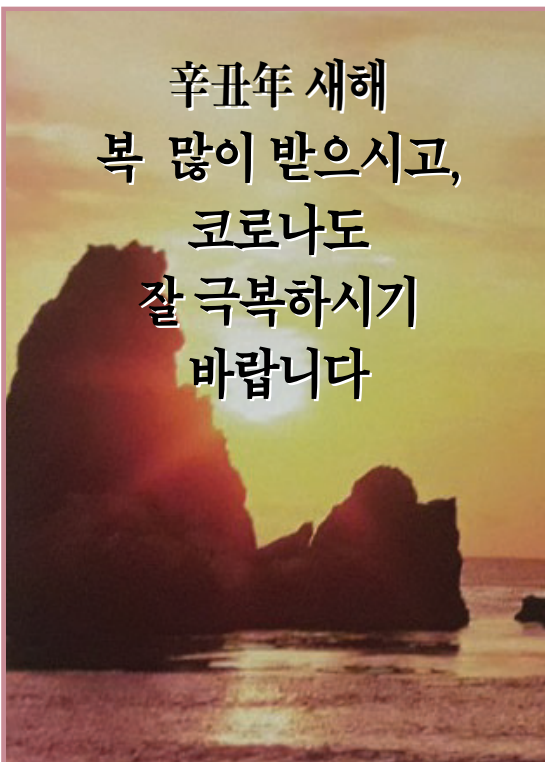
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조례에는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 할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구로구 소재 각 업종의 일 반환형, 근무환경, 처우 등의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명시돼 있다.

이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필수

노동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원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우수조례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 후 이 의원은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도 구민들의 소중한 일상을 위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필수노동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필수노동자의 대우를 향상하고 이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채홍길 기자〉



辛丑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코로나도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총청향우회 구로구을연합회 임원



문헌일 회장

총청향우회 중앙회 공동대표
충남도민회 중앙회 회장
구로구을연합회 회장

문헌일

명예회장 : 이계명
고 문 : 박병구, 최재무, 정달호, 이철수,
주호일, 김갑순

상임부회장 : 천재형
부 회장 : 박용순, 조동익
자문위원 : 이종운위원장 외 22명

감 사 : 이은산, 박상연
이 사 : 강갑석 외 23명
총무이사 : 성성모, 장창희
재무이사 : 정진기
여성회장 : 박종여
사무국장 : 황영락
청년회장 : 정재욱
산악회장 : 이용화



총청향우회 구로구을연합회

구로구 가마산로 229, 2층 201호 (구로동, 성보빌딩)
전화 02) 852-1101

개봉1동 미소들요양병원 확진자 급증

환자·접촉자 등 3,805명 검사... 29일 현재 총 170명-9명 사망

병원의료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환자 구해달라" 글 올려

개봉1동 미소들요양병원·요양원과 관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총 170명으로 늘어났다. 이중 9명이 사망했다. 방역당국은 코호트 격리 중인 이 시설 환자들을 위해 긴급 의료인력 확보에 나섰다.

지난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개봉1동 소재 요양병원 환자 1명이 15일 최초 확진된 후 26일까지 158명, 27일 11명 추가 확진돼 누적 총 170명(구로구민 33명 포함)이며 이중 9명이 숨졌다.

27일 확진자는 환자 6명, 전원 환자 1명, 요양보호사 2명, 간호사 2명이다. 해당 병원 관계자 등 접

촉자를 포함해 현재까지 3,805명을 검사했으며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169명, 음성 3,636명이다.

역학조사 결과 최초 확진자로부터 환자와 요양보호사에게 코로나19가 전파됐다. 추가 확진자로부터 요양원 입소자, 보호자, 직원에게도 전파된 것으로 확인돼 추가 조사 중이다.

현재 해당 시설은 코호트로 지정돼 주기적으로 추적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병원 의료진이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인력지원과 병상확충을 요청했다.

지난 27일 청원 글을 통해 "코호트 격리된 요양병원 환자들을 구해달라"고 호소했다.

글쓴이는 부천과 구로구의 요양병원에서 각 25명과 2명의 확진자가 대기 중 사망했고 8명은 음성 환자지만 격리기간 중 사망했다며 병상과 의료인력 부족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이어 "확진되고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음성이지만 집으로도 타 요양병원으로도 가지 못한 환자들과 보호자들도 언제 코로나 확진자가 될지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덧붙



개봉1동 미소들요양병원과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총 170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이중 9명이 사망했다. <김지현 개봉1동 시민기자 촬영>

였다. 글쓴이는 "간호사들도 고된 간병과 간호 중에 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간병 간호인력이 절대적으로 없어 병당당 1~3명의 인원이 환자를 돌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간호인력도 번아웃되어 곧 나가 떨어지면 아무도 환자를 돌볼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인력지원이 되지 않는 한 기존 양성환자 및 음성환자 치

료가 제대로 되지 못해 사망자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글쓴이는 "코호트 격리에 대한 재검토 및 병상확충이 이뤄지지 않으면 치료를 받으면 살 수 있는 수많은 생명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제발 코로나 코호트 격리 중인 요양병원 환자들을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김유권 기자>

관내 확진자 폭증세 심각, 600명 육박

구청직원·미소들요양병원 등 일주일새 140여명 급증

29일 현재 누적 확진자 총 598명... 3명 사망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는 2021년 1월3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서울시 전체 누적 1만8천명을 넘었고, 구로구 관내 확진자도 600명에 육박하는 등 폭증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29일 현재 구로관내 확진자는 구청직원 1명과 개봉1동 미소들요양병원 관련 등 33명을 비롯, 최근 일주일 사이 140여명이 추가로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모두 598명으로 급증했다. 이날 현재 사망 3명, 359명이 완치 퇴원, 228명이 치료중이다. 사망자는 모두 60대 이상이다.

구로 관내 28일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9명 추가됐다.

관내 582~589번 확진자는 27일 관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오늘 양성 판정을 받았다.

582~583번 확진자(개봉1동)는 가족으로증상발현에 따라 함께 검사를 받고 양성 확진됐다.

584~586번 확진자(개봉2동)는 또 다른 가족으로 가족중 유증상자 발생에 따라 함께 검사를 받고 양성 판명됐다. 587번(구로5동) 588번(고척2동) 589번(구로2동) 확진자는 각각 증상발현에 따라 검사를 받고 확진됐다.

588번 확진자는 타 지역에서 확진자를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었다. 590번 확진자(구로5동)도 증상발현으로 지난 25일 관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당일 오후 양성 판정을 받았다.

29일 현재 구로구 관내 누적 확진자는 598명으로 치료중 228명, 완치자 359명, 사망 3명이며 자가격리자는 국내접촉자 405명, 해외입국자 188명 등 모두 593명이다.

한편 구로구민의 감염경로별 확진자를 보면 미소들요양병원 관련 33명, 구로콜센터 관련 20명, 구로동 A아파트 관련 11명, 중국동포센터 관련 11명, 만민교

회 10명,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9명, 강서구 개척교회 관련 6명, 부천시 구광 관련 5명, 관악구 리치웨이 관련 5명, 보성운수 관련 4명, 타시군 접촉자 294명, 해외 입국 5명, 기타 177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서울시 전체 확진자는 29일 현재 모두 1만8,253명으로 사망자는 167명이다.

구청별로 보면 ▲강서구가 제일 많은 1,317명 ▲송파구가 1,081명으로 2개구가 1000명을 넘어섰다. ▲관악구 966명 ▲강남구 904명 ▲서초구 796명 ▲노원구 782명 ▲성북구 774명 ▲동작구 761명 ▲은평구 749명 ▲중랑구 736명 ▲마포구 675명 ▲양천구 672명 ▲영등포구 661명 ▲동대문구 624명 ▲구로구 598명 ▲강동구 554명 ▲도봉구 540명 ▲서대문구 486명 ▲성동구 442명 ▲광진구 434명 ▲강북구 410명 ▲용산구 408명 ▲종로구 390명 ▲금천구 291명 ▲중구 277명 을 기록하고 있다. <채홍길 기자>

구청 신관 근무 직원1명 확진, 2층 폐쇄

구로구청 신관 S과 공무원 1명이 지난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구로구청에도 한때 비상이 걸렸다.

구에 따르면 S과에 근무하는 30대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구로구453번째 확진자로 구로구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건 처음이다.

A씨는 고열과 함께 감기 등 증상이 나타나자 지난 21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방역당국은 이 직원이 근무하던 구청 신관 2층을 폐쇄하고 긴급방역을 한 후 2층 출입구를 막았다. 또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던 직원 80여 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구청 신관 2층 출입구가 지난 22일 폐쇄됐다.

그러나 같은과 근무 직원 19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채홍길 기자>

관내 임시선별진료소 2곳서 1만4천여명 검사... 확진자 21명 발견

방역당국이 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조기 진단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구로관내 신도림역과 오류동역 2곳에서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28일까지 14일동안 1만4천여명을 검사해 21명의 확진

자를 찾아냈다. 최재린 건강도시팀장은 28일 "진단검사를 확대해 감염환자를 빨리 찾고 격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임시 선별진료소의 운영시간을 야간과 휴일까지 연장했고, 증상의 유무와 상관없이

검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적극적 검사를 유도하기 위해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검사 결과를 받기 위한 휴대폰 번호만 확인하면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채홍길 기자>

관내서 병상 대기 중 60대 男환자 사망

구로 관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상 대기 중이던 환자가 숨졌다.

지난 20일 서울시 등 방역당국에 따르면 19일 오후 구로구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던 60대 남성 A씨가 이날

새벽 사망했다. A씨는 최근 함께 식사한 지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자가격리를 해왔으며, 지난 17일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19일 오후 양성 판정됐다. 그는 자택에서 방역당국의 병상 배정을 기다리던 상태였다. <김유권 기자>

韓-美 잇는 징검다리 '한솔문학' 제4호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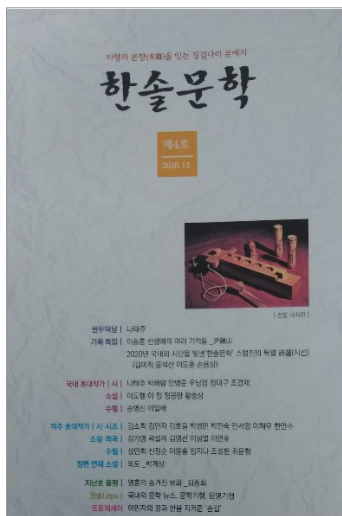
韓·美 문인 시·소설·시조·수필 등 실려

미국 텍사스의 달라스를 기반으로 하는 문학 잡지 '한솔문학' 제4호가 발행됐다.

'한솔문학'은 달라스의 소설가 손용상을 중심으로 국내와 미국 문인들의 작품이 실려 한국과 미국을 잇는 징검다리 문예지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나태주 시인은 "타향과 본향(本郷)을 잇는 징검다리 문예지'란 슬로건으로 종합문예지로 출발한 한솔문학의 네 번째 문집에 뜨거운 격려를 보낸다"고 말했다.

권두덕담에 나태주의 지금 어렵게 들고 있는 그 작은 등불에 대하여, 기획특집으로 이승훈의 선생의 여러 기억들, 尹錫山의 대표시 '위독危篤'의 5편, 국내 초대작가로 <시> 나태주의 코로나시대 외 1편, 박해람의 착석률 외 1편, 안병준의 너에게 보내는 미소(微笑) 외, 우남정의 빙하기를 통



과하다 외, 정대구의 자본주의 시대에 시의 소원, 조경제의 서로 다른 시간의 생 외 2편이 실렸다.

<소설>로는 이도행의 협계열차(挾軌列車) 러브스토리, 이정희의 종려나무 아래서, 정공방의 상처를 건너가는 길, 황충상의 사람본전, <수필>로는 송영신의 홀로

앉아 바람을 본다, 이일배의 계절의 바깥을 보며가 실려 있다. 미주 초대작가에는 <시>의 김소희의 투명한 생일, <시조>의 김인자의 노마드의 소(沼) 외 1편, 김호길의 동백꽃, 박성민의 우리 동네 나팔꽃, 박진숙의 도배사, 기쁨을 바르다 등이 실렸다.

<소설>로는 강기영의 손복길씨 3인과 <수필>로 성민희의 부부, 늙어감에 대하여 외, <연재> 소설 박계상의 장편 연재 소설의 독도, 특별시선(詩選)으로 2020년 국내외 시단을 빛낸 '한솔문학' 스태프진의 특별시선, <편운문학상> 수상자인 김미희 시인 (편집위원), '자오선을 지날 때는 몸살을 앓는다' <신석초문학상> 수상자인 윤석산 시인 (편집자문위원) '햇살 기지개' <한라일보> 신춘문예 당선 이도훈 시인 (편집위원)이 편집했다. <김유권 기자>

초대시

바람개비

시인 김 미 희

무심히
서 있는 줄 알았어

슬쩍 건드려 왔어
세찬 기별 아닌데도
화들짝 그렇게
마른 날개 펼 줄 몰랐어

오도 가도 못하고 서있는
뇌관 없는 굴렁쇠는 아니었어
늘 감겨있는
풀어야 하는 긴장이었어

입김 하나에도
그만
중심을 보여주는
당신이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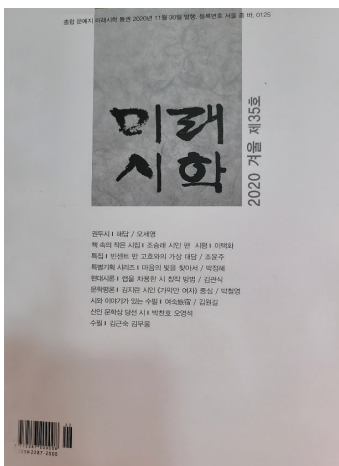
<계간 '시마' 중에서>

- 미주문학 등단
- 시집 : 눈물을 수선하다. 자오선을 지날 때는 몸살을 앓는다
- 편운문학상 수상, 성호문학상 본상 수상
- 미주 연극배우 활동.



'미래시학' 신인문학상 박찬호·오영석씨

랩 차용한 시 창작 방법 등 읽을거리 '풍성'



종합문예지 '미래시학' 제35호가 발간됐다.

금년 겨울호에는 오세영시인의 시 [해답]이 권두시로 실렸으며 박찬호 [국지성 호우II] 오영석씨의 [스카이 라이프]가 신인 문학상을 받았다.

그리고 특집으로 빈센트 반 고흐와의 가상 대담이 수록됐다. 인터뷰어는 조운주(시인)가 맡았다.

그리고 특별기획 시리즈로 경북대 문학박사 박정혜 교수의 [마음

의 빛을 찾아서]가 수록됐다.

아울러 미래시학 시인들의 시를 비롯 김관식씨(평론가·시인)의 [랩을 차용한 시 창작 방법] 등 읽을거리들이 풍성해 재미를 더한다.

특히 경제성장과 함께 소외된 그늘에 살고 있는 달동네 사람들의 삶을 랩으로 만든 [부서진 동네]를 읊조리다보면 만감이 교차한다.

김관식씨는 "진정성을 기본으로

하는 랩 문화와 시와 융합은 독자들로 외면을 받는 현대시의 활로를 활짝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부끄럽지만 본인이 쓴 빈센트 반 고흐와의 가상 대담 등을 통해 고흐의 고뇌를 21세기

로 불러와 함께 공감해보는 것도 색다른 묘미가 될 것이다.

계간 미래시학은 강병숙, 박종래, 안중환씨가 발행인으로 있으며 이현실씨가 편집주간을 맡고 있다. <조운주 객원기자(시인)> 333news@hanmail.net

정백리 차지철

누가 차지철에게 돌을 던지랴!

김유권 지음
문학/사륙판 양장 / 325쪽/값12,000원/ 발행일 2013년 3월 5일

신축년(辛丑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문화가 꽃 피는 구로' 를 만들겠습니다



문인·미술·사진·연극 4개 단체
한국예총서울시연합회 구로구지회장 장동석 외 회원 일동
한국문인협회 구로구지회 회장 장동석 외 회원 일동

지금 오류동 뒷골마을 문학의집 구로에서 여러분을 위해 새롭게 단장하고 아래와 같이 수강회원을 모집합니다!

문학의집 구로 수강회원 모집

이곳에 서울시로부터 '뒷골문학마을학교'의 승인을 받아 구로구청의 지원으로 문학 강좌를 주 5회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언제나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의 시간표	일 (10:00~12:00)	화 (10:00~12:00)	수 (10:00~12:00)	목 (10:00~12:00)	금 (10:00~12:00)
수필창작	독서토론	시창작 및 시낭송	소설창작	동시·동화 시조 창작	
강사: 조 한 순 010-3336-2239	최창: 장동석 010-5234-8907	강사: 윤수아 010-5291-5522	강사: 김 익 하 010-3756-7437	강사: 이준선 010-8467-9915	

수강료 정액제로
교육내용 문학강좌 강의별로 주1회(월4~5회) *방정유일 휴강
혜 렵 - 수강회원 각 부문별 등단기회 부여
- 등단 시 본 협회의 회원가입 자격을 드림
교육대상 성별, 연령 구분없이 누구나 가능
수강신청 위 강의시간표를 참고하여 희망하는 과정의 강사나 아래 전화로 연락
문의 사) 한국문인협회 구로지부
회 장 010-5234-8907
관 장 010-3227-0300
행정실장 010-3336-2239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구로지부
Guro Literary Men's Association